

파워인터뷰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사람중심, 행복여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 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 방향과 파급 효과 등을 들어봤다. 이 시장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상을 12만 여주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시의 연간 예산이 결산 기준으로 1조원이 훌쩍 넘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의 고른 발전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수장으로서의 이런 무게감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시의 슬로건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시 공무원들의 비전이기도 하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대안 세대의 자세만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에게 행정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비전이 업무 추진력의 원천이 되기를 항상 당부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입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시민의 보상 대책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예산 33억 원을 편성해 지역 화폐를 발행했으며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배달특급’ 서비스를 도입해 공공상권 발달 관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1년 한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327명의 소상공인에게 94억 2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특별보증을 지원했다.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회에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신속PCR검사를 활용한 안심5일장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한글시장 스마트 시범상가 구축 사업과 세종시장 혁신형 마케팅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 코로나19 현장PCR검사가 1년을 넘겼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는 듯 한데 현장PCR검사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시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현장PCR검사를 실시해 왔다. 코로나19 현장PCR검사를 실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와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위드 코로나 이후로만 봐도 인근 시·군에 비해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다. 시의 등록 공장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46개가 더 늘었지만 집단 감염으로 문 닫은 공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시 고용·노동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이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기상을 12만 여주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코로나19 현장PCR검사 지속 추진...출렁다리 올해 완공시 관광산업 발전 역할 기대
GTX-A·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 관철 최선...100회 맞은 ‘동네 한바퀴’ 소통 주력

며 2021년 고용률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 수치들은 신속한 검사로 되찾은 안전한 일상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현장PCR검사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코로나의 위협으로 여주시민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포기한다면 자치단체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나아가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PCR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여주의 명소 자리매김할 출렁다리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광 효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국가 하천인 한강에 최초로 세워지는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총 515m로 국내 출렁다리 중에는 두 번째로 길다.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완공 후 첫 해인 2018년에 185만 명, 2020년에 230만 명이 방문했다는 통계를 참고하면 그보다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큰 여주 출렁다리는 적어도 그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 GTX-A 광주-이천-여주-원주 노선 연결 가능성과 기존 경강선의 원주 연결 시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GTX 유치가 실현되면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되고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내세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기폭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는 1을 웃도는 B/C 1.19가 나왔고 여당 주요 예측 조사에 따르면 1일 승차 기준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는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옛 경기실크 부지와 제일시장 부지 등 하등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16일 여주의 구도심인 중앙동1지역(여출동, 하동, 창동 일대 204,944㎡)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지형)에 선정돼 국도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사업으로 그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제일시장 부지에 LH 행복주택과 상생플랫폼, 커뮤니티센터, 행정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복합 조성하는 거점개발사업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여(주)행(복)스테이션 조성,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등의 하드웨어 사업, 그리고 중앙동 상권활력 사업, 여주 로컬 생태계 육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경기실크부지는 특색 있는 구조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라는 전문가의 평가 함께 문화관광체육부 유류 공간 문화재생 기반구상 연구대안으로 선정됐다. 현재 옛 경기실크 공장부지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민위원회로부터 학습과 토의라는 속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나온 상태다. 시는 이를 통해 잠재된 원도심에 관광, 문화기능이 결합된 상권 활성화 사업과 거점시설 조성으로 주민이 머무르고 여행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중심지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여주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여주초등학교가 이전하면 그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확장하는 계획을 민선7기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기에 여주시청 신청사 추진을 위해서도 여주초교 이전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여주초교 이전 문제는 현재, 교육부 산하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주초교 신설대체이전 타당성조사는 올해 1~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4월 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이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세 진행 중인 ‘동네 한바퀴’로 소통하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는데

마을 현장 방문 행사가 지난 연말에 100회를 넘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시골한 현안이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대동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때문에 조만간 잠정 중단한다. 시에는 12개 읍면동에 310개 마을이 있다. 그동안 100여 곳의 마을을 방문하면서 받은 건의 사항만 300여 건에 이른다. 좀 더 일찍 현장을 찾아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진 않다.

여주 /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여주 뉴스 브리핑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달 3일까지

납부용 고지서 4만9300건 일괄 발송

경기 여주시는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체납3회미만)에 대한 납부용 고지서 4만9300건에 대해 일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연납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세정과 전화(031-887-2103)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031-887-38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지자체 간 통보되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여주여강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수리 봉사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장판 등 설치

경기 여주시 북내면은 최근 여주 여강로타리클럽과 연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씬크대를 설치하는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여강로타리클럽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우풍이 삼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가정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영표 회장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제선 북내면장은 “앞으로도 북내면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여강로타리클럽은 1988년에 창립해 30년간 각종 사회봉사와 후원에 늘 앞장서 왔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해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 봉사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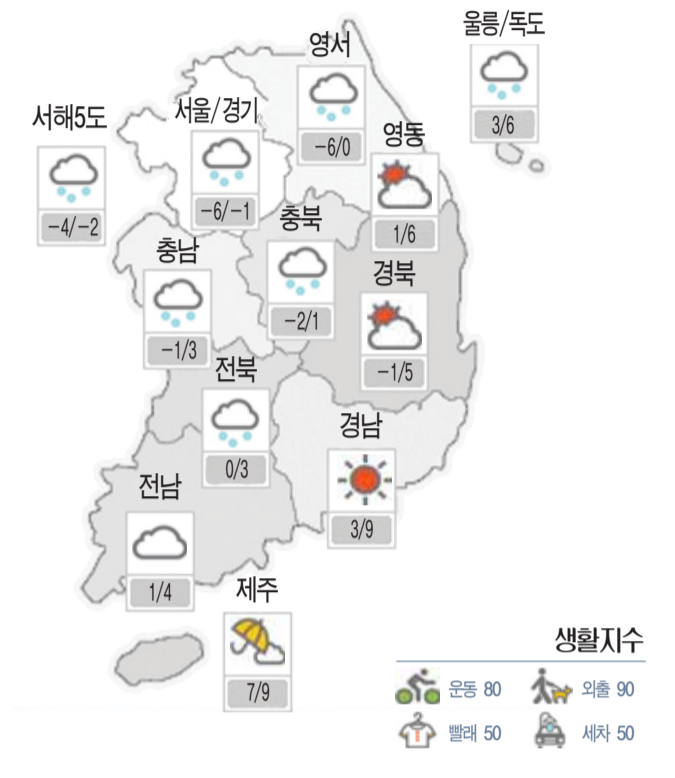
남동구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열어가겠습니다.

※호시우행 : 눈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끈기있고 착실하게 하는 모습

풍요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서울 아침 최저기온 -9도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경북 북부 내륙에 눈이 내리고, 전북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보령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

충남 보령시는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령/ 이진영기자 leegy@jeonmae.co.kr

파주시, 덕진신성 등 주요 성과 조사·정비

경기 파주시는 시 소재 주요 성과에 대한 다양한 조사·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파주/ 임철일기자 imci@jeonmae.co.kr

동해시 북평 해양정, 동해 해양정으로 명칭 변경

지난 1979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된 강원 동해시 소재 북평 해양정이 최근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동해 해양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동해/ 이교형기자 leekh@jeonmae.co.kr

강원 고성군, 예비 문화도시 공모 본격 참여

강원 고성군이 예비 문화도시 공모에 본격 참여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함평군 군수와 실·과장, 고성문화재단 실무자, 예술가, 시민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문화도시 취동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논산시 감염병관리과 “코로나 우리가 잡아요”

확진자·접촉자·검체·해외 입국자 등 4개 전담반 운영 효율적 분담·협업 체계 역학조사·관리 확산방지 만전

충남 논산시가 시보건소 소속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선별진료 및 재택치료를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양평군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장 11개 단지의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긴급안전교육

경기 양평군은 최근 관내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장 11개 단지의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건설관계자 긴급안전교육'을 실시해 관내 아파트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아파트 건설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확진자와 선별 진료 검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확진자반은 명확한 기준에 기반한 확진자 관리를 통해 환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있고 접촉자반은 확진자 역학조사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분류된 밀접 접촉자를 관리함과 동시에 자가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격리지침을 안내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선다.

정동규 군수는 “군에 많은 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아파트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으로 입주 예정자에게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양평/ 홍문식기자 hongms@jeonmae.co.kr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따른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외 입국자 현황 관리, 이송 및 격리 협조, 유증상자 병원 진료 지원 등을 수행 중이다.

이해란 감염병관리과장은 “확진자 발생률 경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관련 접촉자의 감염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추가 확산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촉촉한 선별 진료와 다양한 선제적 방역 시책을 바탕으로 빈틈없

논산/ 박석희기자 psh@jeonmae.co.kr

평택도시공, ITS 통합주차관제시스템 도입

경기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48개소)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척결 '올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굿바이 코로나19” 여주시 새해 알뜰마라톤대회 연다

충남 여주시체육회가 주최하는 굿바이 코로나19 '2022 여주 새해 알뜰마라톤대회'가 내달 6일 오전 10시 여주 신록사 야외공원장에서 여주시육상연맹과 전국 마라톤연합회가 주관하고 시 후원 속에 개최된다.

충남선관위, 지방선거 등록안내 개별비대면 실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별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영월산업진흥원은 최근 강원도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영월산업진흥원, 기술협력 맞춘

강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영월산업진흥원은 최근 영월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강원도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영양 기사·인내 책자 배부 등 지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별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취재본부/ 현상규기자

불법도박 자금 흡치자 가혹행위...일당 2십도 실행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흡친 뒤 잠적한 피해자를 불쌍히 간성하고 진언한 방법으로 과잉선형이 2에서 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재판장)는 2심판(2020다19543)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징역 3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소폭 감형했다.

전기충격·채찍질 등 잔인하게 폭행 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질타

홍씨와 함께 방화한 일당 중 4명은 징역 1~2년의 실형을, 다른 4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이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홍씨는 지

난해 2월 통장을 대여해준 피해자 A씨가 도박자금 1800만원을 흡친 뒤 잠적하자 자신들과 함께 A씨를 납치해 2시간가량 감금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 등은 A씨의 옷을 벗긴 뒤 각종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채찍질을 하고, 개질을 방치한 전기충격기로 고통을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여자친구를 납치하거나 가혹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씨와 함께 방화한 일당 중 4명은 징역 1~2년의 실형을, 다른 4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사이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홍씨는 지

연철뉴스/ 황영기 기자

CJ대한통운 파업 벌써 20일째 설 택배난 우려 특별관리 돌입

오늘부터 1만여명 투입...‘파업 중재 정부 개입 불가능’ 택배노조 “내일부터 택배사 접수중단”...압박 수위 높여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16일로 20일째를 맞았다. 부분적인 배송 차질 외에 대규모 택배난은 없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자칫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사측이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17일부터 연례적인 택배 특별관리를 시작한다.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해 설 택배

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파로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갔다. 또 사회적 합의 사항에도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직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택배비 인상분의 절반 정도는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으며 새해부터 5000명 이상의 분류직업인력을 투입

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어 따라 택배노조는 자신들이 요구한 노사 대화가 불발됨에 따라 18일부터 각 택배사에 택배 접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조합원이 서울에 집결해 집회를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설 이전 사법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은 불가하며 별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택배 대란은 없지만 파업 참여 노조원이 많은 경기도 성남 등지를 중심으로 배송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타워크레인 해체 준비작업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24시간이 지난 16일 관계자들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된 크레인 조립 작업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임도훈 기자

경북도, 산불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경북도는 최근 경북 전역에 계속되는 건조한 기후로 산불위험이 높아 산불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소속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산불방지 취약지역 감시인력 증원 및 순찰·단속활동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올 들어 지역 총 8건의 산불로 산림 6.2ha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군에 산불경계강화를 지시하는 등 간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산불예방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엄격히 단속하고 산불 가해자는 철저히 수사에 범금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겨울철에는 해가 짧아 일출 전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동단계부터 헬기를 최대한 투입하고 각 시군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 1200여명을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최영숙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조그마한 불씨에도 쉽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 주기를 바라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경북/ 신용대 기자 shynud@jeonmae.co.kr

경기도 119 신고전화 13초당 한번꼴 올랐다

작년 241만건 전년대비 9.8% 증가 구조신고 20↑·화재신고는 2%↓

경기도 소방 119상황실에 지난해 총 240여만건의 신고가 접수돼 13초당 한 번꼴로 전화벨이 울린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도내 119 신고는 242만4682건으로 2020년(219만8572건)보다 9.8%(21만4630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6614건, 시간당 276건, 분당 46건이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출동 관련 신고가 95만5334건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고 인나·민원 등 비출동 신고는 146만8928건(60.4%)으로 집계됐다.

현장출동 신고는 2020년보다 7.5% 늘었는데 구조 신고가 18만여건으로 20.4%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뒤를 이어 구급 신고가 64만2000여건으로 14.3% 증가했다. 이와 반면 화재 신고는 11만여건으로 직전 연도보다 2.1% 감소했다. 월별 신고 건수는 7월이 29만8000여건(12.3%)으로 가장 많았고, 8월 27만3000여건(11.3%), 6월 25만6000여건(10.6%) 등으로 주로 여름철이 많았다. 이는 흑사기에 벌집 제거 출동이 늘어나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소방 관계자는 “경기도 소방은 매년 전국 신고 건수의 20% 이상이 몰릴 정도로 신고 전화가 상시 쏠리는 곳”이라며 “신고의 지역·시기별 특성을 잘 분석해 현장 대응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QR 미숙한 어르신들 ‘방역패스’에 헤맨다

탐골공영 주변 방역지점 ‘무용지물’ “인심콜 방역패스 활용” 대안 제시도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은 여전히 방역패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카프가 있어도 때때로 점검 이력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QR코드 시스템이 어렵게 느끼는 마찬가지다. 특히 노인들이 주로 찾는 종로3가 일대 스구 모 식당에서는 사실상 방역패스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안심콜을 사용했고 여전히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곳도 있었다. 수기명부조차 없는 점포도 여러곳 눈에 띄었다.

또 낙원상가 지하에 있는 점포들도 정부의 방역 지침이 유명무실한 건 마찬가지였다. 가지는 내린 시장 내 식당 10여곳을 발품을 팔아 살펴본 QR코드 확인하는 곳은 한 곳도 찾지 못했다. 이처럼 QR코드 중심의 방역패스가 가진 한계가 대두되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패스 확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고양시정연구원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시스템 진단을 통한 안심콜 방역패스

의 활성화 방안 제안’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QR체크인 기반의 방역패스 방식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정보 취약·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QR체크인 방식의 보완 수단 및 대안으로 기존 안심콜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역패스 기능을 결합한 ‘인심콜 방역 패스’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인심콜 방역패스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집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방역패스 표준화 모델로 안심콜 방역패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미기자 kym@jeonmae.co.kr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 스스로 한 층 한 층 쌓아 갈 뿐이다.”

두렵고 힘든 시기를 건디며 그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표와 방향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법정 스님
일반 10주년 특별판**

엔티 50주년
지형 600호 기념판

〈산에는 꽃이 피네〉 〈텅 빈 충만〉 등 법정 스님의 영혼을 울리는 명수필

주 소 서울시 중로구 창경궁로35길 26 2층 (03076) 전화 02-763-8961 홈페이지 www.isamtoh.com

법정 글 1216쪽 | 12,000원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하프파이프대회

2022. 02. 17 / 목요일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대회종목 | 하프파이프 스키 & 스노보드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모든 스키어 및 보더

시상부문 | 초등부(남/여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중고등부(남/여), 대학일반부(남/여)